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승효상



지난 9월1일 개막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이번 주말 막을 내리게 된다.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탐론의 계기를 만들어 그 지평을 넓힘으로써, 디자인비엔날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우수한 해외 언론들의 찬사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좋은 위로가 되었다. 여러 전시 중에서도 광주폴리라는 이름으로 광주의 도심에 지은 작은 공공시설물이 이번 비엔날레의 성격을 단연코 부각시켰다고 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비엔날레의 총감독직을 맡고 광주를 오가면서 본 도시 모습은 이에 걸맞은 게 아니었다. 급조한 듯한 신도심의 풍경과 낙후된 구도심이 어정쩡히 결합된 모습은 우리 땅에 있는 어느 지방도시와 다를 바 없이 처절하였다. 풍부한 녹지와 유려한 광주천, 그리고

정체성을 찾는 일일 게다. 따라서 우리는 이 2.3km에 달하는 읍성길을 따라 읍성을 출입하는 문이 있던 자리와 모서리 부분 10군데에 광주폴리를 짓기로 하였다.

어느 곳은 작은 공원으로, 어느 곳은 작은 공연장 혹은 전시장, 또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출입구를 겸하는 기능을 설정하고 세계유수의 건축가들을 초청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에게 이 작은 시설의 설계가 매력 있을 리가 없다. 보상은 없었다.

나는 이들을 찾아가 광주의 민중화 운동의 역사와 그 의미를 설명했고 건축가로서 이런 문화운동에 대한 참여의 의미를 강조하며 참가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 하나가 파장을 만들며 주변으로 번지듯 이 폴리를 기점으로 주변은 주민 스스로에 의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폴리를 문화적 거점이라고 한다. 더구나 광주시는 앞으로 도매년 광주폴리를 광주 전역에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잘만 되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근사한 문화적 풍경이 광주에 만들어질 것으로 확실하게 되었다.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환경을 싸들이하듯 지워 오래된 숲터를 유린하는 일은 이미 서양에서는 폐기된 방법인데도, 유독 우리의 땅에서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야합으로 이 생소한 풍경 만들기가 성행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급조된 시민처럼 급조된 도시환경에서 파편적 삶을 살도록 강요되어 온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 없이는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고 했다. 지속 가능한 삶이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때, 지금까지 전 국민을 도시의 유목민으로 몰아낸 기존 재개발은 폐기되어야 한다.

물론 광주폴리가 모든 도시문제에 대한 해답이 리 없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소득이 있다. 모든 광주시민이 광주가 역사도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도심 재생에 나설 조짐이 보인 것이다. 역사를 인식하게 되면 미래가 보이는 법 아닌가.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건축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무분별한 길 만들기 ‘단체장 치적용’ 아닌가

광주지역 각 자치구들이 소위 ‘길 열풍’에 따라 길 만들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기본적인 수요나 타당성 조사 없이 수억~수십억 원을 들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 북구청은 올해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일환으로 문흥동 호남고속도로 인근 1742m 구간의 기존 보행로에 나무데크 시설비로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구간은 걷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갈길로 돼 있어 굳이 나무데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의문사 된다.

서구와 남구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자전거 구축사업은 양 구청 모두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올 연말 완공이 무기한 연기될 처지다. 서구 서창~남구 신가교에 이르는 18.1km 구간의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와 구비 각각 25%의 비율로 예산이 배정됐지만 내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들 사업은 1m를 조성하는 데 수백만 원이 드는데다 혜택을 받는 주민이 제한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원이나 국비 보조 등을 이유로 추진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향후 관리비 부담까지 지자체가 떠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산은 국고가 됐든, 자체 재원이든 효율성이 우선이다. 아무리 정부 예산이라 하더라도 수요나 타당성이 전제가 돼야지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구비를 비효율적 재정 상태를 엄밀히 따져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비를 덩석 잡아 놓고 사업을 벌이다 재정 현상상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릿감당을 못하면서 전시성 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게 ‘단체장 치적쌓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설계 잘못’ 혈세 낭비, 엄하게 책임 물어야

광주·전남지역 대형 공공공사에서 설계 잘못으로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엄청난 혈세를 날린 공직자들에게는 주의, 경고 등 ‘송방방이 처벌’에 그쳤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시행한 각종 사업 예산 및 도로·하천공사 추진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1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240억 원을 감액하고, 과다지급된 5100만 원은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설계 잘못 등 업무상 과오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됐거나 될 뻔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를 보면 예산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알 수 있다. 흥농~백수도로공사는 반드시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는 단기방식의 대형공사인데도 이를 아예 무시했다. 또한 경제성 검토 결과,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했다 데도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은 것이 4건에 62억4400만 원에 달했다.

뿐만이 아니다.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불필요한 환경관리비를 버짓기 책정했는가 하면 지자체가 공사를 이미 마친 교량 개축사업비도 끼어있었다. 국가예산에 ‘눈 먼 돈’쯤으로 인식하지 않고 신인 식으로 총칭광명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예산 낭비는 세금 도둑질에 다를 바 없다. 예산이 부족하면 국민 혈세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산 낭비에 대한 처벌은 언제나 시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 9명에 대해 내린 처벌은 겨우 경고와 주의 조치다.

세금의 집행과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있는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알 수 있다. 흥농~백수도로공사는 반드시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는 단기방식의 대형공사인데도 이를 아예 무시했다. 또한 경제성 검토 결과, 예산 절감 요인이

## 의료 칼럼



이상혁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미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미는 주로 가임기 여성이 흔하며, 양쪽 광대에 경계가 불분명한 지도 모양의 색소침착으로 나타난다. 주로 자외선과 관련이 있어 여름철 이후 호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어 임신, 출산시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내분비 이상, 유전인자, 약제(항경련제), 영양 부족, 간 기능 이상 등이 악화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 기미 제거엔 레이저토닝 치료 효과

잡티나 주근깨는 색소가 주로 표피에 존재해 치료가 쉬운 반면 기미의 경우 색소가 진피와 같은 피부 깊은 곳에 주로 존재해 단순 미백관리로는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흔하다. 따라서 자외선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등 예방도 중요하다.

기미는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들고 인상은 물론 치료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특히 기미는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할지 눈앞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비타민 C를 바르거나 복용해 색소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비타민 C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의 활성도를 줄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피부 심부층에 존재하는 기미색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저토닝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레이저토닝이란 피부색소를 파괴하는데 효과적인 1064nm의 파장을 이용하는 가장 최근의 시술법이다. 이는 찰나의 시간대에 최고 짧은 펄스 폭을 이용해 순간적인 고출력 파워를 주어 피부 심부층의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레이저 시술이다.

이러한 레이저토닝은 피부 열 손상 없이 멜라닌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시술 후 세수, 화장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 시술은 통증이 거의 없는데다 시술시간이 10~15분으로 매우 짧은 편이며, 일주

일 간격으로 10회 정도 시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미는 치료 뒤의 관리도 중요하며 평소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 외출시는 물론 평소에도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미백기능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과일이나 비타민제를 섭취하도록 하며, 충분한 휴식 또한 시술은 피부를 지치게 만들어 피부노화가 촉진되는 지름길이므로 수면시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피부는 젊어지는 과정 없이 계속 노화가 진행된다. 효과 높은 레이저 토닝은 여러 가지 잡티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편리한 시술 방법이지만, 이 시술이 노화의 진행을 막아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관심을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레이저토닝을 통해 얻은 맑은 피부를 더욱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

(SM美 성형외과 원장)

## 기고



박창규

담양하면 떠오르는 생태적, 문화적, 관광적인 요소는 단연 전곡에서 최고라 할 만큼 풍성하다. 그치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볼거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그리고 여유롭게 걷고 쉬며 즐길 수 있다.

특히 관방제림,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영상각 발원지로부터 내려온 물길과 숲과 나무와 마을, 문화를 품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관과 가치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과 눈길,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담양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

### ‘행복한 녹색여행’ 담양 수목길 걷기 오세요

로수길이 한데 모인 숲길 3종 세트를 ‘명품 숲 가로수길’로 부른다. 이 길은 2011년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자원을 특색 있는 스토리로 엮어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걷기중심의 길인 ‘이아가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문화체육관광부)’ 10곳의 하나로 선정되어 ‘담양 수목길’로 새롭게 불리고 있다. 영상각의 시원지에서 출발하여 처음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마을숲을 조성한 길이니 가히 전국의 수목길 중에서 으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아스콘을 걷어내고 흙길로 변모해 옛날 신작로길이 연상될 정도로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관방제림은 치수용 항한 선조들의 지혜와 민초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이루어진 제방에 조성된 마을숲으로 노거수와

담양천이 어울려진 경관과 함께 조상들의 친환경적 문화유산으로 강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길이다. 자연공간과 사람 사는 공간 사이에 경관적 요소가 추가되면서 친환경시대의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이제 담양의 길은 ‘오방길’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가지고 담양읍내 수목길(中)을 중심으로 슬로시티 싸목싸목길(東), 담양 하천 습지길(西), 가사문화 누정길(南), 담양호 산성길(北) 탐방로로 품격을 갖춰가고 있다.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스토리가 흐르는 오색길로 정비되고 있다.

물, 숲, 나무와 정신이 어우러져 완과 여유가 공존하는 응송한 문화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담양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공존과 상생을 통해 일궈낸 가장 이상적인 미학을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말에 점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11년 담양 수목길 걷기대회’가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열린다고 한다. 10월의 두 번째 놀토일에 삶의 여유와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수채화 같은 가을 풍경을 푸른빛으로 목욕시킬 수 있는 곳까지 느껴보면 어떨까.

골프장 18홀의 길이(6km) 만큼 걸으면 하루 건강에 그만이라는 말처럼 숲길 3종 세트에서 15리를 걸어 나의 건강을 진단해 보면 어떨까. 전국적인 유명세로 확산하고 후 집서했던 메타세쿼이아가 아닌 자연 휴길로 복원된 길 위에서 생태적 활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색여행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이번 주말, 잠시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너의 철학을 담은 숲길 3종 세트를 걷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남도립대학 교수·담양오방길시행회장)

가족들 얼굴도 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안타깝다

국내 여행객들의 해외여행시에는 여행사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도박의 위험성과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만들어서 제공해 줬으

면 한다. 여행사들이 그런 의무만 지켜도 동남아 여행객들이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불법까지 저지르는 일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 원정 도박 빠지지 않도록 여행사 고객 관리 철저해야

유명 연예인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필리핀 세부에는 도박장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만을 노리는 도박장도 있다고 한다. 물론 안가면 그만이지만 체계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어 쉽지않은 않다.

개인적으로 업무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에 자주 들린다. 이곳에는 한글 간판을 내건 도박장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소수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

영되고 있던 이런 도박장들이 일반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인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면서 늦은 시간이면 상당 수의 한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한번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 만원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 오고 간다.

사정이 이런 정도이니 광범한 관광객으로 왔다가 도박에 빠져 거액을 날리고 현지에 눌러앉는 경우도 있다. 카지노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갈 곳 없고,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간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